한 달 만에 환율 127원 급락… 3분기 1400원선 하회 가능성

16일 거래일 연속 1400원대 거래
연준 금리 전망·당국 개입 등 영향
전문가들 환율 추가하락 분석 제기

지난달 달러당 1550원 수준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했다. 미·일 양국이 공조해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값 부양에 나선 가운데, 국내 외환당국에서도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을 끌어 내렸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 등 달러 강세 요인도 일부 해소되면서, 원화값이 1400원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2.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2.7원 오른 수준이며, 지난달 14일 이후 16거래일 연속으로 1400원대에 거래됐다. 환율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2일(1555.8원)과 비교해선 약 한 달 만에 123.3원(7.9%) 내렸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주간 평균은 달러당 1484.6원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7월 들어서는 주요 수출기업의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으로 환율 상승세가 꺾였지만, 지난달 28일까지는 과거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1450원을 넘기며 고환율 국면이 지속됐다.

최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엔화값의 과도한 저평가를 우려한 일본과 미국 양국이 공조에 나서면서 엔화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같은 동아시아 권역 통화로 분류되는 기축통화인 엔화값을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앞서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를 대행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 달러당 160엔을 연일 넘기며 급락한 엔화값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미 당국이 엔화 매입에 나선 것은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이다. 미국의 이번 개입 규모는 약 50억~1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미국의 환율 개입에 발맞춰 일본 외환당국도 환율 조정에 나섰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연일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섰으며, 총 개입 규모는 11조~12조엔으로 추정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3일 이번 조치가 미·일 양국 간 공조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으며, 환율 안정을 위해 추가 개입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일 양국이 엔화값을 의도적으로 부양하며 원화값도 상승한 가운데 국내 외환당국도 시장안정조치에 나서며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야간 거래에서 달러 매도 및 원화 매수 조치에 나서면서 환율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한 것 또한 원화값의 강세 요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6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2%를 밑돈 수준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및 소비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미·일 외환시장 공조 영향으로 원화값 강세가 뚜렷하고, 달러 강세 요인도 일부 해소돼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3분기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현상이 진정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시화로 미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슈퍼 엔저 현상이 주춤하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3분기 환율 전망치로는 달러당 약 140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리 인상 기대감 고조… 은행, 정기예금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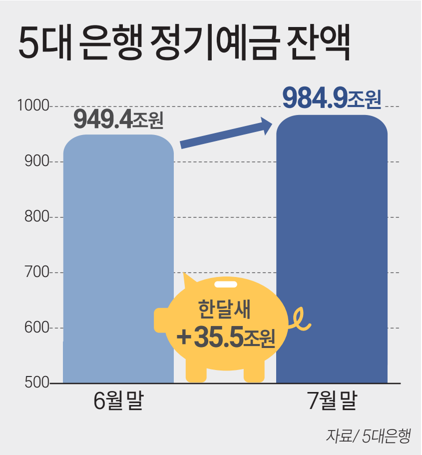
5대 은행, 한달 새 잔액 35조 이상 증가
고금리 상품 확대·증시 변동성 등 영향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한달 만에 35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연 3%대 정기예금을 내놓자 투자 대기성 자금은 줄고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84조939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정기예금 잔액은 949조3998억원으로 한달 새 35조5401억원 급증했다.

시중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옮겨간 배경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예금상품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sms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연 2.40~3.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은 연 최고 3.30% 금리를 제공했다.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과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은 금리를 연 최고 3.20%, 제공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 조달 수요가 더 급한 지방은행도 최고 연 3%대 후반의 고금리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iM뱅크의 'iM스마트예금'은 연 최고 3.55%,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은 연 최고 3.76%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연 3.81%까지 상단 금리를 올리며 시중의 뭉칫돈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증시 자금이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도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120조5836억원이던 투자자예탁금은 그달 말 104조1354억원으로 13.3% 감소했다. 장중 코스피지수가 5200선까지 밀리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 예금으로 옮긴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선제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증시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투자 대기자금과 단기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JB금융, 하반기 경영목표 'AX 대전환' 제시

고효율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JB금융그룹이 하반기 경영 목표로 '전 그룹 차원의 질적 성장 및 AX(인공지능 대전환)'을 제시했다.

JB금융그룹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사진) 및 전 계열사 경영진 150여명이 참여하는 '2026년 제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손익 목표 달성 및 그룹의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상반기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는 한편, 자산이 지속 성장하며 그룹의 구조적 이익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최근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전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3857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JB금융은 이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하는 한편, 전 그룹 차원에서 실질 이자이익과 같은 구조적 이익이 확대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JB금융은 올 하반기에도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영업경비율(CIR) 우위를 지속하고 비이자이익 확대와 고효율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금융 역할 및 기업금융 지원 확대, 지점 영업 강화, AI·상품 경쟁력 확대 등 하반기 5대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계열사간 의견을 타진하고 실행 전략도 논의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그룹 전반의 AX(인공지능 대전환)를 위한 특강과 세미나 등 다양한 AI 관련 세션도 진행했다.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JB금융그룹과 전략적 투자를 지속 중인 웹케시그룹의 석창규 회장이 연사로 참여해 'B2B 금융 AI 플랫폼 활용 사례와 전사 생산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승진 기자

토스뱅크, 개발인턴 채용

토스뱅크가 두 자릿수 규모의 개발 인턴을 채용한다. 선발된 인턴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우수 평가를 받은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프리 인터뷰, 직무 인터뷰, 컬처 인터뷰, 합격 및 처우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학기를 수료한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가운데 신입 또는 경력 3년 미만으로, 6개월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고도화

전화·금융정보 공유 근거 마련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및 금융정보를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도입된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109% 증가

매출 3조9949억, 영업익 4879억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487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커지면서 연간 신규 수주 목표도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높였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50억원에서 3630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2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3% 증가했다.

상반기 매출은 3조9949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이 2조665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토목사업부문 7433억원, 플랜트사업부문 5115억원, 기타 연결종속부문 7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가 감소해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율 안정화와 건축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7조1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보다 22.4% 증가했다. 상반기 말 수주잔고는 53조4019억원이다.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6년 치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